

청소년 '학교 공포증' 의외로 많다

등교 두려워하거나 머리·배 아픈 증세 경험

여학생 더 심각...선생님·친구로 인한 불안도

서울·인천 3백여명 조사

학교 가는 것이 두렵고 학교 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거나 배가 아파지는 등 '학교공포증'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청소년대화의 공장 이명선·이정운 상담원팀이 최근 서울지역 초·중·고교생 2백94명과 인천지역 중학생 20명 등 모두 3백14명을 대상으로 '학교공포증' 실태를 조사한 결과, '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'고 응답한 학생이 4.7%였던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남학생(1.7%)보다는 여학생(8.2%)이 훨씬 더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9.5%의 학생들은 '학교 갈 때가 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'고 응답했으며 8.6%는 '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'고 답변하는 등 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뚜렷이 보이고 있었다.

또한 학교뿐 아니라 선생님, 학교 친구에 대한 두려움도 두드러져 '선생님 생각만 해도 겁이 나

□ 학교공포증 진단기준

1. 학교 가기가 너무 무서워 결석을 하곤 한다.
 2. 학교에 갈 때가 되면 두통, 복통, 혹은 구토가 생긴다.
 3.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.
 4. 학교 친구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싫다.
 5. 집을 나설 때면 부모님이 나를 영영 떠나버리거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매우 걱정된다.
 6. 남이 나를 볼 때마다 나의 외모에 대해 흥분까봐 걱정이 된다.
 7. 학업성적이 떨어질까 너무 불안하다.
 8. 새학년이 될 때마다 학교환경에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다.
 9. 몸이 불편하다가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면 이례적으로 괜찮아진다.
- (5개 이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자주 나타나면 학교공포증으로 볼 수 있다.)

구들이 두렵고'(7.2%) '학교 친구들이 싫다고 할까봐 물건을 빌려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'(12.4%) 뿐 아니라 '친구들이 따돌릴까봐 싫은 것도 싫다고 말 못하는'(20.2%) 학생들도 많았다.

한편 '성적 때문에 불안하다'(7.2%) '내가 없을 때 집에 무슨 일(불도둑, 부모님의 사고 등)이 날까봐 걱정이 된다'(40.2%) '새학년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다'(28.4%)

'집 말고 다른 곳에 가기가 두렵다'(8%) '부모님이 어디로 가버릴까봐 불안하다'(7%)는 학생들도 많았다.

청소년대화의 공장 강진령 상담조교수는 "학교공포증을 보이는 학생은 교실 안에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연습을 시키고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등 학교와 가정의 협조해서 치료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